

7급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 (서울시 2006년 10월 1일)

이재민

[문제1] 다음은 수요의 탄력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 ①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무한대일 때(즉 가격에 대하여 완전탄력적인 수요)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직이 된다.
- ②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1보다 클 때, 가격상승은 총수입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 ③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단위탄력적일 때, 가격의 변화는 총수입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
- ④ 정상재의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도는 일반적으로 부(-)의 값을 가지게 된다.
- ⑤ 두 재화의 교차탄력도(한 재화의 가격변화에 따른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가 정(+)의 값을 가질 때, 두 재화는 서로 보완재이다.

[정답] ③

[해설] ① 수평의 수요곡선 : 무한탄력적

수직의 수요곡선 : 완전비탄력적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직각쌍곡선이고 어느 가격에서도 판매수입을 일정하다.
- ④ 소득탄력성이 양수이면 정상재이며, 탄력적이면 사치재이다.
- ⑤ 교차탄력성이 양수이면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이다.

[문제2] 영석이의 효용함수가 $U(X, Y) = X^3Y$ 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자. X재의 가격을 P_X , Y재의 가격을 P_Y , 영석이의 소득을 m이라 할 때, 다음 중 영석이의 X재에 대한 수요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frac{m}{P_X + P_Y}$
- ② $0.33mP_X$
- ③ $0.75\frac{m}{P_X}$
- ④ $\frac{m}{2P_X}$

⑤ $1.33 \frac{mP_Y}{P_X}$

[정답] ③

[해설] 효용극대화에서 X재의 수요량을 유도한다.

$$m = P_X X + P_Y Y \text{ ----- ①}$$

$$\frac{3X^2 Y}{X^3} = \frac{P_X}{P_Y} \text{ ----- ②}$$

②를 Y에 대하여 정리한 다음 ①에 넣고 X에 대해 정리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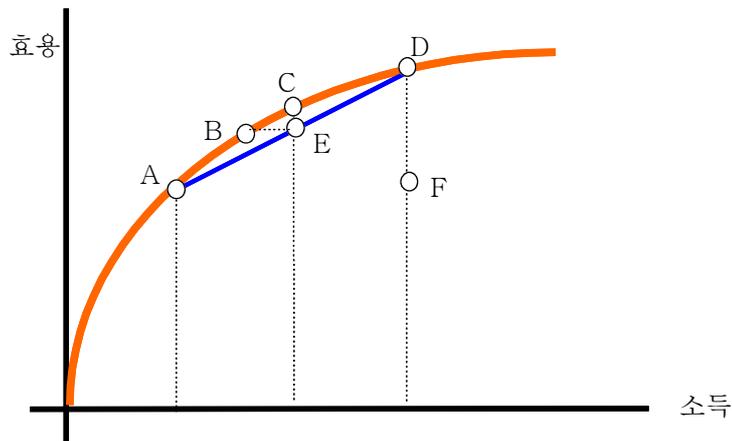
$$m = P_X X + X \frac{P_X}{3}$$

$$\therefore X = \frac{3}{4} \frac{m}{P_X}$$

$$Y = \frac{1}{4} \frac{m}{P_Y}$$

C-D형 생산함수의 특징은 두 재화가 서로 독립재관계이다. 식을 보면 두 재화의 수요함수는 직각쌍곡선이다.

[문제3] 다음 그림은 철수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느끼는 효용을 나타낸다. 철수는 0.5의 확률로 3만원을 받고 0.5의 확률로 9만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자. 철수는 이러한 위험을 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화폐가치로 나타내면 무엇과 같은가?



- ① 점 A부터 점 F까지의 거리
- ② 점 A부터 점 D까지의 거리

[문제5] 다음은 독점기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초래한다.
- ②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으로써 형성되는 독점을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 한다.
- ③ 슈페터(Schumpeter)는 기술혁신이 독점기업보다는 완전경쟁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 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의 가격은 완전경쟁기업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

[정답] ③

[해설] 정태적인 관점에서 독점은 과소생산과 높은 독점가격을 낳게 되지만, 독점이윤은 기술발전의 동기와 재원을 제공한다. 슈페터는 혁신의 유인으로 독점이윤을 들고 있고, 이러한 관점은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이어진다. 즉, 독점은 동태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동기를 제공한다.

[문제6] 다음의 게임이론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우월전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내쉬균형전략은 찾을 수 있다.
- ② 내쉬균형전략이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최적의 전략을 뜻한다.
- ③ 완전균형이란 내쉬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의 짝을 뜻한다.
- ④ 우월전략이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언제나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전략이다.
- ⑤ 내쉬조건은 상대방이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때, 자신만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조건이다.

[정답] ③

[해설] 순차형게임에서 경기자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다른 선택을 할 경우를 고려하여 최적대응을 찾은 것이 완전균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완전균형을 손떨림 완전균형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은 선택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신념(선택확률)을 고려한 최적대응인 순차균형보다 더 강한 개념이다.

[문제7] 생산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주요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 ②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속도
- ③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가 가능한 속도
- ④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 ⑤ 생산요소가격의 크기

[정답] ⑤

[해설] 요소수요곡선은 MRP(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면 VMP)곡선이다. 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곡선이 수평에 더 가까운 기울기를 지질수록 더 탄력적이다. 일반적인 수요의 가격탄력성결정요인에서 다음을 유추할 수있다.

- ①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반응도가 큼
- ② $MRP = MR \times MP$ 이므로 체감속도가 클수록 반응도가 큼
- ③ 대체성이 클수록 반응도가 큼
- ④ P의 변화가 클수록 MRP의 변화가 커서 탄력성이 큼

[문제8] 다음 그림은 어떤 나라의 소득분포를 말해주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나타내고 있다. 수직축은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나타내고, 수평축은 가구의 누적 백분율을 나타낸다. 다음 그림에서 모든 가구 가운데 소득수준 최하위 20%인 가구들은 경제 전체 소득 가운데 _____%를 벌고, 소득수준이 그다음 하위 20%인 가구들은 경제 전체소득 가운데 _____%를 벌고, 소득수준 최상위 20%인 가구들은 경제 전체소득 가운데 _____%를 벌었다. 다음 중 빈 칸에 적당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문제10] 공공재에 대한 3명의 소비자들이 각기 $P=50-Q$ 로 표시되는 동일한 수요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단, P 는 한 단위당 가격이며 Q 는 재화의 단위수임) 공공재의 한계비용이 $MC(\text{한계비용})=30$ 원이라면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은 얼마인가?

- ① 150단위 ② 100단위 ③ 60단위
 ④ 40단위 ⑤ 20단위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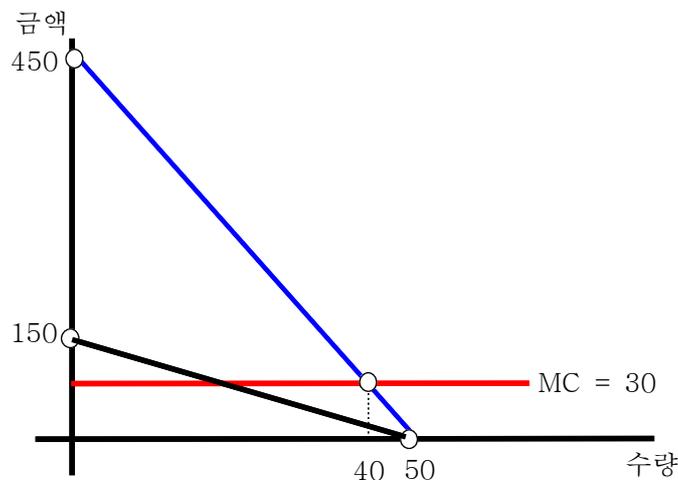
[해설] 공공재는 동시소비성(비소진성)으로 인해 사회적 한계편익은 개인의 한계편익(수요가격)을 합하여 계산한다. 즉, 개인수요곡선의 수직합이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이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P = 150 - 3Q$$

사회적 최적균형은 사회적 한계편익 $P = MC$ 에서 도달되므로,

$$150 - 3Q = 30$$

$$\therefore Q = 40$$



[문제11] 한계소비성향이 0.9 , 소득세율이 0.1 , 한계수입성향이 0.01일 때 독립투자가 300만큼 증가하였다. 저축의 변화는 얼마인가?

- ① 105 ② 115 ③ 125
 ④ 135 ⑤ 145

[정답] ④

[해설] $\Delta S \equiv \Delta DY - \Delta C$

우선, 독립투자승수를 구해서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분을 구해보자.

$$\begin{aligned} \text{독립투자승수} &= \frac{1}{1 - mpc(1 - t) + mpm} \\ &= \frac{1}{1 - 0.9 \times 0.9 + 0.1} = 5 \end{aligned}$$

$$\therefore \Delta YS = 5 \times 300 = 1,500$$

$$\begin{aligned} \Delta C &= \text{한계소비성향}(1 - \text{직접세율}) \times \Delta YS \\ &= 0.81 \times 1,500 \\ &= 1,215 \end{aligned}$$

$$\begin{aligned} \therefore \Delta S &= \text{한계저축성향}(1 - \text{직접세율}) \times \Delta YS \\ &= 0.1 \times 0.9 \times 1,500 = 135 \end{aligned}$$

[문제 12] 다음의 화폐수량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거래형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기능 중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현금잔고형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기능 중 구매력의 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Friedman의 신화폐수량설에서는 실질국민소득,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등을 이용하여 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Friedman의 신화폐수량설은 그 이전의 화폐수량설들이 화폐에 대한 수요 이론이었던데 반해, 화폐에 대한 공급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다.
- ⑤ Friedman의 신화폐수량설에서는 총자산 가운데서 비인간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정답] ④

[해설]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은 고전적 화폐수량설을 미시적 최적화이론으로 개량한 화폐수요이론이다.

[문제 13]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고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에 여유가 있다고 가정하자. 다음 중 화폐공급의 증가가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투자와 국민소득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경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고,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며, 승수의 크기가 클 경우
- ②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

력적이며, 승수의 크기가 클 경우

③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며, 승수의 크기가 작을 경우

④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며, 승수의 크기가 클 경우

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고,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며, 승수의 크기가 클 경우

[정답] ④

[해설] 금융정책의 케인즈효과통로를 묻는 문제이다. 금융정책의 효과가 클 조건은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통화주의학파의 주장과 일치한다.

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신화폐수량설)

→ 이자율변화가 크다.

②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에 탄력적(영구소득가설)

③ 승수과정이 크게 작동

[문제14] 합리적 기대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 주체는 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② 경제 주체의 미래에 관한 전망이 경제 모형 내에 명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예측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대응으로 인해 무력화될 수도 있다.

④ 민간부문의 과거 행동에만 근거하여 수립된 정책은 그 결과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⑤ 경제 주체의 미래에 관한 예측이 사후적으로 틀릴 수는 있지만, 경제 주체는 일관된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불완전정보하에서 감쪽정책의 유효성을 설명

② 수학적 조건부 기대치 모형

③ 감쪽정책을 쓸수록 정책효과가떨어짐

④ 케인즈의 계량방법비판

⑤ 체계적 오류의 부인

[문제15] 다음은 인플레이션의 발생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①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횟수가 빈번해지는 ‘구두가죽비용(shoeleather cost)’이 발생한다.
- ③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플레이션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정답] ②

[해설] ①② 구두창비용과 메뉴비용은 예상된 인플레이션하에서도 발생하는 순수한 사회적 비용

- ③ 채무자에게서 채권자로 소득이 이전됨
- ④ 스태그플레이션은 비용인상인플레이션임
- ⑤ 불확실성은 가산금리를 발생시켜 투자를 위축시킴

[문제16] 다음 중에서 경기변동 선행지수인 것은?

- ① 제조업체 입직자수/이직자수
- ② 산업생산지수
- ③ 도시가계소비지출
- ④ 제조업가동률지수
- ⑤ 도소매판매액지수

[정답] ①

[해설] ③은 경기후행지수이고, 나머지는 경기동행지수이다.

[문제17]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국제무역이 지속적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얻는 이익은 사회 전체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
- ③ 기술진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④ 나라와 나라 사이의 소득격차가 없어지는 소득의 수렴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지는 것은 아니다.
- ⑤ 솔로우성장모형은 내생성장이론에 근거한 모형이다.

[정답] ⑤

[해설] 솔로우성장모형이 예측하는 일인당국민소득의 수렴성이 비현실적임이 실증됨에 따라 국가간에 소득의 비수렴성이 나타나는 내적인 요인을 찾는 것이 내생적 성장이론이다.

[문제18] 무역장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할당제는 비관세 무역장벽에 속한다.
- ② 상계관세는 해당제품의 수입국에서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관세이다.
- ③ 수입할당제와 관세는 후생 측면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관세에 비해 수입할당제는 정부 수입을 감소시킨다.
- ④ 수입식품 검사기준의 강화는 일종의 비관세 무역장벽이다.
- ⑤ 수출자유규제는 수입할당제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무역장벽이다.

[정답] ②

[해설] 상계관세는 상대국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서 WTO에서도 인정된다. 시장개방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다.

[문제19] 2003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 한국의 물가하락률은 5%이며 대미명목환율이 7% 하락했다고 할 때 대미실질환율은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 ① 1% 상승 ② 2% 상승 ③ 5% 하락
- ④ 9% 하락 ⑤ 3% 하락

[정답] ①

[해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대미명목환율은 8% 하락해야 한다.

$$\begin{aligned} \text{대미명목환율변화율} &= \text{국내물가상승율} - \text{미국물가상승율} \\ &= -8\% \end{aligned}$$

그러나, 실제로는 대미명목환율이 7% 하락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 상승한 것이다. 수식으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다.

$$\text{대미실질환율} = \frac{\text{대미명목환율} \times \text{미국의 물가지수}}{\text{한국의 물가지수}}$$

변화율관계로 고치면,

$$\begin{aligned} \text{대미실질환율변화율} &= \text{대미명목환율변화율} \\ &\quad + \text{미국의 인플레이션율} \\ &\quad - \text{한국의 인플레이션율} \end{aligned}$$

[문제20] 변동환율제에서 가격표시 명목환율(예들 들면, 미국의 \$화의 원화표시 가격)의 변화나 그에 따른 반응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장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에서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한다.
- ②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외국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 ③ 다른 상황이 불변이고 환율이 하락하면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 ④ 다른 상황이 불변이고 환율 상승이 예상되면 자본의 해외 순수출이 커진다.
- ⑤ 과잉반응(Overshooting)이 지배적일 때, 국내통화량이 증가하면 환율은 떨어진다.

[정답] ④

[해설] 환율상승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출품의 국제시장가격 하락 → 수출증가
- ② 수입품의 국내시장가격 상승 → 수입감소, 국내물가상승
- ③ 마셜-런너조건이 만족되면 경상수지 개선
- ④ 순수출의 증가로 국내경기 활성화
- ⑤ 환율이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악화됨
- ⑥ 예상환율이 높아지면 환투기, 외화저축이 높아짐
- ⑦ 원화가치의 하락예상으로 자본의 해외유출 발생
- ⑧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의 해외유출이 발생하여 환율의 과잉상승반응이 나타난다.

올해 시행된 국가직 시험과는 대조적으로 중상급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았다. 쉬운 문제도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산문제가 25%, 그래프 문제가 1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한 두 문제를 제외하면 기출문제의 변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출문제와 거의 같은 것도 있다. 게임이론을 제외하고는 출제범위가 보편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있지 않다. 80점 이상의 득점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해설 파일은 필자의 사이트 이재민의 경제학 틀만들기(<http://eco119.co.kr>)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